종법은 승가 지키는 울타리

현불논단



덕안 스님
전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총무원장 선거가 다가오면 종단의 공기가 달라진다. 때로는 세속 정치의 선거판을 떠올리게 할 만큼 경쟁이 과열된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승적과 수계 이력까지 다시 끄집어내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나 역시 출가와 수계의 기록이 단순하지 않다. 스무 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긴 치료와 요양을 거쳐 스물세 살이던 1996년 해인사로 다시 출가했다. 사미계를 받고 선방을 다녔지만 비구계는 도반들보다 늦은 2003년에 받았다. 그 과정에서 승랍도 실제 출가 시점보다 늦게 적용됐다가 이후 종법이 바뀌면서 다시 정리됐다. 승적에 남은 숫자 몇 줄만으로는 그사이 한 수행자가 지나온 시간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 다시 묻게 된다. 종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종법은 승가의 청정을 지키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의 약속이다. 승가는 본래 화합중(和合衆)이라 불렸다. 문제가 생기면 대중이 함께 살피고, 허물이 드러나면 참회하며, 다시 화합해 수행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승가의 원리였다. 율장의 목적은 허물을 들춰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아 승가의 청정과 화합을 회복하는 데 있다. 오늘의 종법도 그래야 한다. 선거철마다 과거의 기록을 들춰 상대를 흔드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법의 본래 목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의혹 검증과 정치적 공격은 구별돼야
종법 따라 정리된 사안 존중도 필요해
선거 과정서 청정·화합·대중공의 보여야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검증과 정치적 공격은 구별돼야 한다. 당시 제도와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기록은 당시 규정과 절차를 기준으로 살펴야 하고, 이미 종법에 따라 정리된 사안이라면 그 결정 또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한국불교가 어렵게 사회와의 접점을 넓혀가는 시기다. 지난 몇 년 동안 불교가 현대인의 삶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어렵게 만들어온 변화가 선거철의 과열과 내부 공방으로 후퇴한다면 특정 후보를 넘어 종단 전체가 감당해야 할 신뢰의 손실이 된다.

승가까지 세속 정치의 문법을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다.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목적은 승가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 선거 역시 대중공의를 모아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모시는 과정이어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라면 누가 수행자의 품격과 종단을 이끌 원력을 갖추었는지, 누가 대중공의를 모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법은 사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한다.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법은 상대를 겨누는 칼이 아니라 승가를 지키는 울타리여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야 화합을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선거 과정 자체에서 청정과 화합, 대중공의라는 승가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한국불교의 다음 100년이다. 그 첫걸음은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승가의 정신을 오늘의 제도와 선거 과정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에 대한 무감각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입추가 지나고 나니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극한 폭염이 한발 물러선 덕분이다. 더위와 함께 극심한 가뭄도 해갈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아 참 다행이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가을의 풍요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들이 꼬리를 물고 대화의 장에 오를 만하지만, 화제는 주로 억지로 꾸미거나 과장해서 눈길을 끄는 이야기들로 한정되고 만다.

인공지능(AI)의 일상 속 비중과 역할이 커지면서 단골 주제로 과장된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는다. 머지않아 모든 면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이 일자리를 뺏길 뿐만 아니라 삶과 사회의 주도권도 넘겨줄 수 있다는 공포가 전제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산업에 매진해야 하고, 그러려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데이터센터를 곳곳에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석탄과 석유, 원자핵을 이용하는 발전소도 계속해서 건설해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흐름을 주도하다 보니, 다른 색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자칫 소외되거나 세상 흐름을 모르는 얼간이라는 비난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정말 그런 것일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공포 섞인 일방적인 방향성은 빠르게 자리 잡았다. 인공지능은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과 맺는 관계 측면에서도 이전과

인류와 지구 위한 AI 관심과 인력 필요
AI 관련 불안과 편승 등이 무감각 불러
여실지견의 지혜와 실천, 연대 펼쳐지길

다른 양상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모두 인간 모두와 지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극히 일부의 세계적인 디지털 기업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들마저 종국에는 인공지능이 부리는 마술에 휘둘려 노예처럼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서 서로 다른 차원과 의미를 지니지만, 그 둘은 인간의 무감각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우리는 극한 폭염과 호우, 폭설을 경험하면서도, 기후위기가 없다고 거리낌없이 거짓말을 하는 트럼프 같은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들의 강변에 기대서 일상의 불안감을 다스리거나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극단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도 어느새 크게 들려오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과장된 열망과 편승도 인간의 무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됐고, 그것이 우리 삶과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지녀야 하는지는 점차 관심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런 무감각은 두 가지 점에서 위험하다. 하나는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사유(無思惟)의 위험이다. 깨달음을 얻는 붓다는 자신의 첫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지혜를 가르쳤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실천하는 인간과 그들 사이의 연대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함께 맞는 이 땅의 가을이 그런 사유와 연대, 실천의 장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社 說

종단의 절반, 이제 함께 가야 한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강화와 종단 운영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종책제안서를 내놓았다.

이번 제안에는 출가자 감소와 포교 환경의 변화, 종단 구성원의 고령화 등 한국불교가 당면한 현실에서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종단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담겨 있다. 수행과 교육, 포교, 복지,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비구니 스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종단 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총무원 행정기구 참여 확대, 중앙종회 비구니 의석수 확대, 종단 차원의 승려복지체계 구축, 선학원과의 관계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그간 거론됐던 '비구니부'를 신설하는 방식보다 현재 총무원 주요 보직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구본사 선거인단의 일정 비율을 비구니로 구성하고, 종단 및 대외협력 관련 위원회에도 비구니 참여 원칙을 적용하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비구니 스님 역량 끌어낼 종책제안서
차기 집행부, 새 미래 여는 첫걸음이길

비구니 스님들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비구니부 신설과 참종권 확대는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다. 2003년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비구니부 신설을 종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대신 총무원 문화부장에 비구니 스님을 임명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종단 행정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사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종단의 제도적 문턱은 여전히 높다. 조계종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의 주요 직책에서 자격 요건이 '비구'로 제한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지만, 올해 3월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이는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바라보는 종단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종헌·종법은 종단의 근간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한 검토'라는 명분이 현상 유지를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가 변하고 승가의 구성과 역할이 달라졌다면 제도 역시 그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국비구니회의 종책 제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비구니 스님들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가 당선되든 약속한 종책을 실질적인 제도와 행정으로 이행해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은 참종권 확대는 종단이 가진 인적 역량을 온전히 활용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는 한국불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제38대 조계종 집행부가 그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8월 26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8월 2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8월 2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